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36)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이름을 만나거든 이름을 베고

붓다뉴스'에 어느 분이, 제가 '불교학자나 철학자라기보다 에세이스트같다'라고 평을 해 주셨습니다.

제 글이 어느 불교학자이나 철학자들과 다르게, 미안합니다. 딱딱하거나 고답적이지 않고, 문학적 향취가 있다는 뜻일 거라 짐작하고, 으쓱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의 세 '이름'들은 서로 다른 이름들인가. 가령 에세이스트라면 불교학자나 철학자일 수 없고, 불교학자는 또 철학자와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것일까요. 제가 옛적에 쓴 책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를 두고, 어느 기자가 신문서평에서 '한문학자'라고 규정하는 바람에, '아차, 한문학 하시는 분이 한 소리들 하시겠군'이라고 뜨끔한 적이 있습니다.

철학도, 불교학자, 한문학자, 에세이스트 저는 이 모두의 이름에 걸쳐 있지만, 어느 하나도 꼭 집어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학의 철학과를 나왔으니 '철학도'일 것이나, 불교를 공부했으니 '불교학자'가 아니라고도 못하겠고, 글에 문학적 상상력이

가미되어 있으니, '문학도'는 낮간지럼지만, '문학자'이라거나 '에세이스트'의 이름을 쓴다 해도 큰 죄가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합쳐도 살아 있는 저를 감당하기는 태부족일 것입니다.

'이름'에 너무 고집하거나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어떤 특성들을 거칠게, 그리고 임시적으로 보여줄 뿐, 그 안에 무슨 고유한 불변의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니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을 규정하는 수많은 이름들은 어떤 역할과 기능을 알려주고, 또 어떤 측면을 보여주지만, 끝끝내 여러분 자신들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아찔 풀잎 위의 이슬처럼 미끄러져 굴러 떨어집니다.

이름은 우리가 사물을 '분류'하는 방식에 따라 드러난 이미지(相)입니다. 사람들은 그 방식이 사물의 자체적 성질에 따른 것이기에 객관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객관적 정보이고 지식이라고 해도, 이름에는 또 다른 측면, 즉 제가 저번 강에서 누구이 말한 대로, 사물에 대한 개인적 집단적 '가치의 식'이 함께 스며들어 있습니다. 어떤 말들은 객관적 정보는 없고, 감탄사나 욕처럼,

호오와 편견만 들어 있기도 합니다.

이름의 두 얼굴, 정보와 감정 사이

1) 정보로서의 말은 우리가 편의를 위해, 일정한 목적 아래서 소통하고 이용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말과 이름을 떠나 살 수 없지요. 우리는 이것들을 태어나면서 배워 습득했고, 그 관행에 따라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사람들과 교통하기 위

동의가 깔려 있지만, 가치를 부여하고 선호하는 것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제 편에는 칭찬한다고 했던 말이 영 아니었던 경우도 있고, 남은 경멸한다고 제게 던진 말이 별로 상처가 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름으로 하여 생기는 오해와 갈등은 심각한 바 있습니다. 상사와 동료 사이에서 싸움을 증재한 제 친구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제 보니 꼭 토요일미 히데요시같더군!" 여러분은 이 말이 어

그러니 이름으로 상처주지 마십시오. 비난하러거든 솔직하게 하십시오. 악의를 숨기고 복선을 깔아 모호하게 빔대 상처 주는 것은 비열한 짓입니다. 불교의 근본 계율, 불망어(不妄語)를 가슴에 새겨두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름에 상처받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하십시오. 칭찬은 무엇이고, 비난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이해관계와 호오에 따른 또 다른 편견에 지나지 않는 것을... 칭찬과 비난은 자신이 스스로

그러니 어떤 이름에도 기죽거나 슬퍼하지 말고, 때 어떤 이름에도 잘난 척하거나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 이름들은 남들이 바깥에서 준 상표 혹은 딱지일 뿐, 여러분의 생명 자체에, 여러분의 불성 자체에 걸맞는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이나 그 불성에는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엄(華嚴)이 전하는 대로, 여러분은 들관과 우주에 마음대로 피어있는 화려한, 이름 없는 꽃들(離花)입니다.

높거나 낮거나 간에, 평가를 하고 가치를 매기는 이름이란 인간들이 자기 주관에 따라, 사회적 유용성이라는 편협한 잣대에 따라 붙여준 바깥의 물건이란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것들의 집요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30장에서 부대사가 의타기성(依他起性)을 두고, 율은 노래를 기억하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사람의 진정된 모습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그대는 이름의 고착과 환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若悟真空色, 儻然去有名)"

나고 찬한 것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이름들일수록, 자신을 옮겨 주고 사람들께 편안하게 교제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재산, 지위, 명예 등의 외면적인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종교적 진리까지, 그것이 '이름'일 때는 결연히 버려야만, 다시 말하면 일체의 칼날처럼 "아버지를 베고 붓다와 조사를 죽여야만," 우리는 각자 자신의 다이아몬드의 불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이 말합니다. "수부티야, 내가 말하는 불법(佛法)은 불법이 아니다(須菩提, 所謂佛法者, 即非法)."

불교는 그 단호한 칼날의 버릴 위에서 비로소 꽃피기 시작합니다. ■한국의학중앙연구원

내 불성에 걸맞는 이름을 지어다오



해서는 이 말과 이름들을 잘 습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열심히 이들을 공부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신문을 매스꺼, 그리고 회사나 공장에서 이들을 습득하기 위해 그리 애쓰는 것입니다.

2)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이, 말이, 이름이 자기를 표현하고 감정과 의지를 담은 도구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곳은 바로 이 이름과 말의 주관적 측면입니다. <금강경>이 전편을 통해, 이름을 썼다가 지우려는 작업을 지루하게(?) 반복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말들은 좋아하고, 어떤 말들은 싫어합니다. 어떤 말은 더 좋아하고, 어떤 말들은 더 끔찍해합니다. 앞의 예를 들면, 저는 에세이스트보다 불교학자나 철학자라는 이름을 더 기뻐하거나, 그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손 분이나 저나 대체로 이 세 이름이 다 '있어 보여서' 좋아할 것이라는

말게 새기겠습니까. 당사자는 모욕적으로 들었습니다. 토요일미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 밑에서 그의 신발을 품에 안는 지극한 충성으로 신임을 받은 이야기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속상해지는 그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중재 능력과 리더십을 높이 산 것이야. 토요일미가 전국시대를 청산하고 천하를 통일한 위업에 빚대 그런 말을 한 것 아니겠나."

에게 가하는 것이지, 남의 입과 생각을 빌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佛法)은 불법이 아니다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탄식을 기억합니다.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스스로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견보다 남의 의견을 더 존중하는 것일까?"

주장사파라...

59 벽송 선사의 '道'



조태호

Comic strip panels with dialogue between characters, including lines like '마음바깥에 부처가 없다', '부처가 누구인가?', '문은 그대가 누구인가?', '저기 있는 벽송은 누구인가?', '벽송은 스승문하에 오래 있었으나...', '나뭇하는 일과 짐승의 몇 되씩', '장보는 일에 싫증을 느끼고 떠나려 한다', '이제 무슨 놀란 말입니까?', '그럼 어둠이 특별한 빛이 있다면', '그건 번뇌이지', '벽송아! 내 법을 받아라!', '스승의 고향에 크게 깨닫는다'.

벽송지엄(1464-1534): 조선 스님. 부안 출신으로 계룡산에서 득도. 벽계 정심들에게 배워 중사가 됨. 저서로 <벽송집>이 전한다.

네티즌 교리문답

평상심(平常心)이란 무엇입니까?

역대조사들은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라 했습니다. 그럼 배고르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목마르면 물 마시는 것이 평상심입니까? 평상심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불학자)

답1: 평상심이라는 것은 일체의 번뇌가 항복 받은 상태에서 바로 쓰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갖 번뇌의 장애 받지 않고 직관하는 그곳에서 용심(用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평상심'입니다. 중생들의 번뇌에서 나오는 것은 망상심에서 나타나는 평상심이니 망상 평상심이고, 전자는 순수한 평상심입니다. (금강소석)

답2: 일상생활 모든 것이 평상심입니다. 이것은 모든 현상이 있는 것 같은 것임을 직관(直觀)하여 분별 집착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중생의 번뇌에서 나오는 망상심도 근본은 도인의 평상심과 다르지 않으니 분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같기 때문입니다. 또 번뇌와 해탈이 이름만 다를 뿐 서로 다른 것이 아니며, 그 형태가 같기에 그렇습니다. (개울)

답3: 우리가 육근(肉眼)으로 보는 세상은 차별된 세상입니다. 누구는 잘나고 누구는 못나고,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고,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다는 등 제각각 달리 보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법안(法眼)으로 보면, 그대로 평등한 세상입니다. 육안이 만들어낸 기준에 의해서 차별된 세상이 펼쳐지나 차별된 세상이 그대로 평등하여 여려한 법계를 이룹니다. 차별된 마음이 강하면 번뇌(不淨)이며, 차별된 마음이 약하면 보리요 참선입니다. 또 차별하는 행이 강하면 부정(不淨)이며, 차별하는 행이 약하면 참정입니다. 선정은 평상심이며 평시행이지만, 그 또한 분별하여 차별된 눈으로 본다면 명암이 분명한 것입니다. (춘심)

답4: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평온하면 평상심에 가까운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히로에락'에 휩쓸리면 중생심에 가까운 것이 아닐런지요. (초보자)

답5: 평상심은 의심이 없는 중생심이고, 중생심은 의심이 있는 평상심입니다. 평상심과 중생심에 차이는 오직 의심의 있고없음의 차이와 같습니다. (김명상)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1 7 8 10 11 12 13 14 15 6

상식퍼즐

- 1. 돌을 갈아서 도구 만들던 시대로 마제석기라고도 함
2. 은혜를 입은 고마움이 뼈에 박히도록 있을 수 없음을 뜻하는 고사성어
3. 사찰에서 행하는 의식에 쓰이는 도구
4.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
5. 극장에서 이른 아침시간대에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
6. 자석영이라고도 하며 2월의 탄생석.

정답은 26면에
1. 염불을 공안으로 수행하는 수행법
2.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 내용을 '이유 없다' 하여 배척함
3. 재난 등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처소를 옮김
4. 바느질할 때 손가락에 끼는 가죽
5. 바쁜 가운데의 한가한 때
6. 사람의 말소리를 흉내내는 새
7. 사악한 생각을 버리고 부처님의 율바를 도를 따른다
8. 주무관청 등에서 예하기관을 직접 통솔하는 것
9. 불교에서 한 종파를 열었거나 그 종파의 법맥을 이은 선승
10. 어질고 자혜로움을 나타내는 단어.